

청와대 회동 참고자료

1. 모두말씀 (공개)

○ 안녕하세요?

어제 마지막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주재하시고,
최전방 부대와 중소기업 연찬회도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겨울은 몇 십년만의 강추위라고 해서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고통이 크고,
전력수급도 걱정인데,
대통령께서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돕겠습니다.

○ 어제 인수위원장을 발표했고,
인수위 구성을 조만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저는 인수위를 가급적 차분하고, 조용하게 운용하면서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둘 생각입니다.

정부의 정책 집행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유념해서 인수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지난 선거기간 내내,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많이 봐서,
당선됐을 때도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치유하고 통합할 것인가...
앞으로 5년 동안 정말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우선 첫 단추부터 잘 꿰야 한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2. 현안 말씀

(1) 외교안보

○ 한반도 및 주변 외교 안보 환경으로부터 오는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함.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여전하고, 주변국간의 관계도 긴장되는 등 안보정세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음.
주요 안보현안과 관련하여 인수 기간 중 각별한 협력을 부탁함.

○ 추가 도발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가 정말 중요하고, 남북 간에도 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남북 간에 어떤 접촉이 있는지요?
(※ 최근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3차례 비밀접촉이 있었다고 함)

○ 한미동맹 관련해서 민감한 이슈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원자력 협력협정 협상(연초 협상 재개 예정)은 2년 이상 되었는데, 인수기간에도 진전이 있으면 좋겠음.

외교안보에는 여와 야, 전현직 대통령이 지혜와 힘을 모아서 더 튼튼한 안보태세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함

(2) 경제 문제

○ 현 정부의 경제성과에 대한 덕담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국가신용등급이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올라가고,
세계에서 8번째로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성과도 있었음.
대통령님과 온 국민이 노력해서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함.

○ 민생 살리기의 중요성

그렇지만, 올해 정부의 성장 전망치¹⁾를 달성하지 못했고, 내년에도 정부 전망치인 4%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임.²⁾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크게 고통을 받는 분들이 서민과 중산층인데, 이 분들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어려운 점을 챙기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지금 재정을 투입해서 민생을 살리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재정을 아끼는 일이 될 것임.

○ 민생예산 국채발행 협조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진통을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심. 전국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서민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생생히 보았음.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국채발행에 소극적인 정부 입장도 이해하지만, 지금은 민생경제 자체가 위기상황임.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정부도 국채발행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음. 지금 국회에서 예산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지금으로선 12월 31일조차 통과여부가 불투명함.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조 4천억원 규모의 국채발행 필요성³⁾

1)3.3%

2)13 성장률 전망(%): (IMF, 9월→10월)3.9→3.6 (한은, 7월→10월)3.8→3.2

3)①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조건없는 전계층 지원(지방비 부담경감포함+1.4조원), ②반값등록금 실현(+1,441~6,441억원), ③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1,468~3,150억원), ④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운영(+500~930억원), ⑤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확충(+100~240억원), ⑥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고정직불금 인상(+873~2,619억원), ⑦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강화(+800억원), ⑧경로당 난방•양곡비(+600억원) 등.

시급한 민생예산의 반영을 위해서는
최대 1조 4천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국채발행이 필요함.
추가적인 세출삭감의 한계와 예산안의 연내처리 등을 고려할 때,
민생예산의 반영을 위해 최소한의 추가 국채발행은 불가피함.

1조 4천억원의 국채발행이 무산될 경우,
민생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 없음.
저소득층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서는
민생예산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함.

최대 1.4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해도
균형재정의 척도인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Delta 0.4\%$ 로 유지되어 문제없음(정부안은 $\Delta 0.3\%$).

○ 중소기업 지원

며칠 전에 중소기업중앙회를 다녀오기도 했지만,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조차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져
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적 금융기관과 보증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소기업들이 극한상황으로 몰리지 않도록 배려했으면 좋겠음.

세계경기가 장기간 함께 침체되면서,
내수 중소기업뿐 아니라 수출 중소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들은 환위험을 헤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정부가 중소기업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코트라(KOTRA)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겨울철 빈곤층 긴급 지원대책

올 겨울 내내 맹추위가 예고되고 있음.
날씨가 추워지면 빈곤층이나 소외계층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함.
최근 전기가 끊겨서 인명까지 앓아가는 마음 아픈 사고까지 발생했음.
정부가 빈곤층과 사회적 소외계층들이
겨울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다양한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음.

○ 민생치안 철저

최근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성범죄자가 도주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사건이 있었음.
연말연시인데다 대선이 끝나 어수선한 시기여서
각종 흉악범죄가 우려되는데
대통령께서 민생치안을 다시 한 번 직접 챙겨주시기 바람.

○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현안

최근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이어지고 있음⁴⁾.
세계 경제의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인데,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셨으면 함.

4)18 대통령 선거일인 19일 이후 일주일 사이 노동자와 시민활동가 등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노동계가 비상시국을 선언함.

언론 인터뷰 (예산관련)

야당이 정치적인 각을 세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국민들이 너무 힘들.

이렇게 소나기가 내릴 때, 정부가 우산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시급한 민생현안을 챙기는 일에 있어서는 여야 구분이 없다고 생각함.

시급한 민생 예산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도 국정 동반자로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야당도 유사한 내용으로 공약했던 것들임.

여야의 차원을 떠나 국민행복의 입장에서 공감하여

주실 것으로 믿음.

야당 지도체제가 정비되는 대로 지도부와 만나

국민을 위해 함께 할 수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숙의할 것임.

■ 마무리 말씀 (공개)

○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하루 하루 너무 힘들게 보내고 계신데,
다음 정부의 민생정책들이 하루라도 빨리 실행되고
국민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